

##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미 령\*

탈북자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연구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비교적 많은 대상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그들의 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추론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171명이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요한 탈북자의 인구학적인 변인과 탈북 이후의 변인인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교육유무가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직상태는 그들의 적응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 사회적지지인 친척의 수, 남한에서 사귀 친구와의 접촉빈도,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빈도,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은 개별적으로는 우울증 증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구조적 사회적지지는 우울증 증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는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지만 도구적지지는 우울증 증상을 증가시키므로 탈북자들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적절성이 요청된다.

주제어: 탈북자, 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증 증상

### 1. 서론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약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 1990년까지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중국의 체제변화에 힘입어 숫자가 점점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탈북자의 숫자는 매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조금씩 증가하여 1999년부터는 그 숫자가 배로 증가하였다. 2004년 6월 현재 그 숫자는 5000명을 넘어섰으며(조선일보, 2004년 7월 8일), 동남아에 거주하던 탈북자들의 단체유입(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과,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며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유입하려고 하고있어 탈북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것으로 탈북자들을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민족의 사회통합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귀순용사가 한 두명이었을 때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공훈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인 영웅으로까지 대접을 받고 정부로부터 풍족한 경제적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탈북자들의 숫적인 증가로 인해 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도 부족하여 처음에 도착했던 탈북자들보다 교육기간도 짧다. 또한 대한민국에 정착을 위해 받는 정착금이 있지만 이들의 자활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보호차원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탈북자들이 효과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가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자립하여 한국사회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족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배려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탈북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는 학자들의 연구의 관심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윤인진, 2000a; 한인영, 2001) 주로 사회적응과 문제점에 관한 총론적인 연구로 대부분이 서술적인 연구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인구학적인 특성, 탈북과정, 개인적 특성 등의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특수성,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탈북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응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지만(이소래, 1997; 김학성, 2000; 오혜정, 1995; 윤여상, 2001) 연구대상은 몇 십명수준으로(이소래, 1997; 전우택, 민성길, 1996)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연구가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당위론적인 것이었다(김명세, 1996). 또한 많은 경우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미간행물이어서(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장혜경, 김영란, 2000)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많은 탈북자들이 꿈을 안고 이 땅에 찾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연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가치가 있는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한국사회의 문화차이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들이

있음과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지지 자원이 얼마나 되며,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적응스트레스가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적응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그들의 극복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 스트레스인 직장의 유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것으로 인한 가족역할의 상실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적응스트레스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지지자원이 이들의 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스트레스에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적응스트레스의 정도와 한국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지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적응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것은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윤인진, 2000).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탈북자들의 한국생활에의 정착과 그들의 삶의 만족을 돕는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적응스트레스가 그들의 적응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둘째,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사회적지지체계의 영향은 어떠한지, 셋째, 기능적 사회적지지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탈북자들의 연구의 제한점은 윤인진(2000a)이 지적한대로 이론의 부재다. 실질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에서 Berry의 적응이론을 제외하고는 이론에 근거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이다. 탈북자연구를 위하여 윤여상(2001)은 여러 적응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통합모델로 매슬로의 욕구충족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윤인진(2000a)은 Berry의 모델에 근거한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Berry의 적응이론과 어느 대상에나 적용이 가능한 Pearlin의 스트레스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특히 탈북자들과 같이 다른 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어떠한지 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극복자원으로 사회적지지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스트레스 과정론적인 입장(Pearlin, 1981; Ataca & Berry, 2002)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기존의 서구 국가들의 이민자나 소수 민족들이 주류사회에서 겪는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설명으로는 Berry의 적응이론을 이용하려고 한다.

Ataca와 Berry(2002)는 이주자들의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둘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인 적응은 두 유형으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연관이 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사회상호작용이 활발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인진(2000a, 2000b)은 탈북자들의 적응을 물질적(경제적) 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의 둘로 나누고 있다. 물질적(경제적)적응은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의 획득”(p.166)을 의미하며 정신적(심리적) 적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일 것이다. 윤인진(2000b)에 의하면 물질적, 심리적 적응에 모두 성공하여야만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탈북자의 경우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는 부적응 즉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심리적 적응의 실패는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겪는 상실감내지 죄책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실패는 한국사회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여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윤인진, 2000b). 많은 경우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한민국으로 왔으므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직업유무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갖는 것이 달라질 것이며, 직업은 물질적 적응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응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윤인진, 2000b, p.15)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은 외적인 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내적인 자원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내적인 자원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않던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할 내적자원으로 인하여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며 이에 대한 영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우울증의 증상 등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를 심리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복에 가족을 두고 온 가족역할의 상실과,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경제적인 어려움 및 생활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의 유무 즉 무직상태로 구분하였다.

## 1)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

탈북자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꿈과 기대감으로 한국 땅을 찾아왔지만 곧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김성민, 2001). 초기의 하나원을 통한 적응교육과 정착금 등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국가보다는 동질적이라 생각하였던 한국사회에도 반세기가 넘는 분단을 통한 이질적인 문화,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직상태와 가족과의 이별은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전우택 & 민성길, 1996; 이기영, 1998; Hyman, Vu & Beiser, 2000; Matsuka, 1993) 난민에 대한 스트레스의 종류를 크게 가족구성원의 상실과 이별에 대한 가족 스트레스, 직업에 관계된 스트레스, 언어의 장벽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Hirayama, Hirayama & Cetingok, 1993).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언어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있으며 약 1년정도 지나면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과거에 북한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은 상실하고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전환과정에서 역할 긴장을 겪게되며 역할수행과정의 결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neshensel, 1992). 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역할전환은 역할상실로 북한에서의 지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등이 있겠으며 가족역할의 상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할이 변화될 때 역할의 재구성과정에서 개인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해야한다(Pearlin, 1983). 이와 같이 역할변화는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역할변화는 개인의 사회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역할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된다. Pearlin et al.(1981)에 의하면 변화는 불균형을 가져오며 불균형은 재적응 하는데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재구성과 재적응과정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할변화는 역할긴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재적응은 개인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된다. 특별히 외적인 역할변화의 요구에 부

응하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개인들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상실은 공식적인 역할상실과 비공식적인 역할상실이 있는데 직업의 상실은 공식적 역할상실로, 가족역할의 상실은 비공식적 역할상실로 구분지을 수 있다. 역할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아정체성은 반대로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역할이란 사회적 지위에 동반하는 기대되는 행동으로(George, 1993) 성, 나이, 지위 등이 사회적인 역할(Turner,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Pearlin, 1983). 사회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구조를 구성하며 개인들이 사회의 실체의 한 부분으로 그들을 인식하도록 해주므로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상황과 분리할 수 없다(Goode, 1960; Rosow, 1985).

특별히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지위란 직장을 통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직장을 필요로 한다. 직장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자격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직장이나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의 자격과 맞지 않는 직장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직장으로 인해서 자아상실감 등을 느끼기도 하며 안정된 직장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꿈꾸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도 먼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4분의 1을 넘는 수의 탈북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분의 1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이우영, 1997). 이와 같이 많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낀다고 한다(김성민, 2001).

스트레스는 한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만성적 삶의 스트레스는 계속되는 평가로 인해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위의 불일치(Aneshensel, 1992)가 있다. 적절한 수입은 개인의 다른 사회적 자원에의 접근을 가능케하는데 탈북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부분의 탈북동기가 경제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탈북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탈북에 대한 회의를 주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사회적지위나 사회참여 등 사회적인 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와 비슷한 지위에서 직장을 잡거나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취업을 배려하였지만 지금은 그 배려도 사라졌다.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탈북자들이 실업이나 빈곤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였으며(윤인진, 2001) 약 50%정도가 직장을 얻지 못하여 무직자 상태에 있다(김성민, 2001). 직장이 없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경제적으로(절대적인 빈곤의 개념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한국사회의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때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된다. 직장의 유무는 자아정체성 뿐 아니라 경제적 상태를 결정하고 경제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Pearlin & Johnson, 1977)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탈북자들의 중요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도 경제적 적응이라고 한다(윤인진, 2001).

반면에 비공식적인 역할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Rosow, 1985). 그러나 공식적, 비공식적에 상관없이 역할변화가 적응을 요구할 경우에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Wheaton, 1990). 이민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지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Matsouka & Ryujin, 1989-1990). 그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윤인진, 1999; 이기영, 1998, 이장호, 1997) 북에 두고온 가족으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박미석, 정승원, 1999). 그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가족관계의 역할 즉 가족역할이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역할을 상실한 탈북자들은 비공식적인 역할상실로 비공식적인 역할수행이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지지부재로 인하여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Matsuoka, 1993). 특히 한국에 아무런 친인척이 없을 경우 이러한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더욱 채워지기가 힘들 것이다.

역할의 전환성은 상실된 역할을 다시 비슷한 역할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역할의 보상성은 새로운 역할이 상실한 역할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된 역할은 상실한 역할과는 다른 것이다. 탈북자들의 역할변화 중 가족역할의 상실은 전환되거나 보상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특히 북한에 부모를 두고 온 경우나 자녀를 두고 온 경우에 자녀나 부모의 역할은 전환될 수 없다.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일 경우에 재혼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상된 역할은 그들이 상실한 역할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상실한 가족의 역할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가족역할의 상실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때로는 고독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가족역할의 상실은 가족이 전부 탈북하지 않는 한 대치될 수 없고 전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통

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역할의 상실은 탈북자들이 겪는 심리적 적응스트레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온 탈북자가 단신으로 온 탈북자보다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주가 주는 부담과 자원상의 문제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한인영, 2001), 이 연구의 대상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로 그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데의 친지, 친구의 도움이나 정서적지지의 중요성 등은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라도 다른 사회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재정상태나 자원, 그들의 지위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탈북자라도 직업의 상실이나 가족의 역할상실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의 반응은 그들의 친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단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회적지지자원이 풍부하며 직접적인 자원을 받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 2) 사회적지지 및 효과

사회적지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Cohen & Syme, 1985, p.4)으로 정의된다. 사회적지지는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Barrera, 1986), 정신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Thoits, 1982).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대상이든지 사회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으로, 탈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애정이다(김성민, 2001).

특히 사회적지지체계가 약한 탈북자들에게 여러 방면의 사회적지지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조적 사회적지지와 기능적 사회적지지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지지는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애정이나 호의, 관심, 확신, 도움 등과 같은 개인상호작용의 실질적인 거래(Kahn & Antonucci, 1981) 등을 포함한다. 구조적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로 우정, 가족의 결속 및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등에 의한 사회조직망도 포함하며, 이러한 관계의 성격 즉 다양성, 크기, 빈도, 밀도(Cohen & Syme, 1985) 등을 말한다. 또한 구조적 사회적지지는 사회통합,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의 자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의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사회적 지지망과의 유대감(sense of bonding)과 결속력(sense of binding)등이다(Lin et al, 1999).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



해서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속감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탈북자들이 자조집단 등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 사회적지지가 되겠다. 또한 한국에 일가친척이 있든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든지, 같은 탈북자 친구가 있는 것 등 사회적지지체계가 있는 것 자체로 그들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지지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도 하고 관심과 도움을 받으며 그들의 삶에 만족감 및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또한 기능적 사회적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정서적 도움을 받든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 도구적 도움을 받는 것 등이다. 탈북자들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도움 외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자신들만의 자조집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지지체계는 상당히 제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대한민국에서 친구를 갖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없고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윤인진, 2001). 또한 한국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편견, 또 그들의 신분의 특성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한국친구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전우택, 민성길, 1996). 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구성원이 29.3%, 다른 탈북자들이 19.4%, 이웃이 13.9%, 직장동료가 8.4%로(이우영, 1997) 가족이나 친척, 같은 탈북자를 빼고 그들이 새로 대한민국에서 사귀 사람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자원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특히 고향을 떠나 타지로 와서 적응하며 살아야하는 탈북자들에게 사회적지지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적지지는 심리적 적응스트레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Ataca & Berry, 2002).

앞의 구조적 기능적 사회적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듯이 사회적지지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받는 관계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그 자체로써도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일가친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회적지지체계는 다르게 구성되며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즉 사회적지지체계와의 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역할을 통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능적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을 말한다(Cohen & Syme, 1985). 사회적지지가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망의 현존은 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는 개

인이 사회적지지망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관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

사회적지지의 연구에서 기능적 사회적지지는 크게 도구적, 정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Cohen & Syme, 1985; Helgeson, 1993; Lin, 1986). 도구적지지는 교통편을 제공하든지, 심부름을 해 주든지,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등과 같이 실질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며 정서적지지는 개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하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 혹은 배려 등을 포함한다 (Cohen & Wills, 1985; Helgeson, 1993; Thoits, 1985).

사회적지지의 기능은 개인의 사회지지망에서 오는데 특정한 상황이 특별한 기능의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체적인 기능은 특별한 효과가 있고 각각의 지지망은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로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각각의 사회적지지체계는 적절한 사회적지지를 공급할 수 있다. Pearlin(1985)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분업을 설명하였다. 공장에서 근로자의 맡은 영역에서의 직무가 다르듯이 다른 종류의 사회적지지, 즉 정서적, 도구적지지는 개인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고 효과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인 무직상태, 가족의 상실 등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도구적지지가나 정서적지지 등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지지가 있는 개인은 사회적지지가 없는 사람들 보다 높은 복지를 보이는데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Cohen & Syme, 1985; George, 1989).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삶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망에의 소속감에 기인한다(Cohen & Syme, 1985). 개인들이 특정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서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Cohen & Syme, 1985). 탈북자와 같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사회에의 삶의 변화와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건강을 통하여 적응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Holmes & Rahe, 1967) 정신건강은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Ataca & Berry, 2002; Matsuoka, 1993). 많은 연구가 적응에 따른 결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증을 사용한다(Ataca & Berry, 2002; Oh, Koeske, Sales, 2002). 그러므로 우울증 증상의 정도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상황적 특성

탈북자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교육수준, 나이, 성별,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교육 등 자신들이 갖고있는 상황 변수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은 이들 변수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탈북자의 연령, 성별 등으로 개인의 배경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2000a). 탈북자라도 그들의 자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적응의 수준은 다른 것이다. 탈북자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탈북 이전의 요소와 탈북 이후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계층이 한국사회의 적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윤인진, 2000b) 북한사회의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 이전의 요소는 교육수준이다(Gibson, 2002). 또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는 그들의 나이 즉 발달단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atsuoka, 1989-1990).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나이는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이후의 요소는 서구사회에의 노출로(Gibson, 2002)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윤인진, 2000a).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지의 제3국에서의 자본주의 경험 이 한국사회에 대한 사전적응으로 한국에서의 적응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거주기간은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며(한인영, 2001) 거주기간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Ataca & Berry, 2002) 입국년도에 따른 적응수준 또한 다르다(윤인진, 2000b). 입국년도는 국내 거주기간도 말해주지만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이에 대한 영향도 다르다. 그러나 탈북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1980년을 전후한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1990년대에 입국한 자들로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그들의 적응수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요한 탈북 이후의 요소로는 한국에서의 교육으로 교육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 윤인진(2000b)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지식에 기반한 직장 뿐 아니라 학우나 동문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로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한 적응력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교육은 직장의 획득에도 직접 연관이 있고 경제적인 안정과도 직결되므로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은 여러 탈북자 단체의 구성원들을 설문조사 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성격상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적인 표본조사에 의해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171개의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회귀분석을 위하여는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163개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인인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종속변인인 우울증 증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인 무직상태와 가족역할상실 각각의 우울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친척의 수와 새로운 사회에서 사귀 친구, 탈북자 친구 및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유무 등 사회적지지의 우울증 증상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받고있는가의 기능적 사회적지지의 영향도 조사를 하였다. 이때에 인구학적인 변인인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교육연한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고 탈북자의 상황변수인 중간경우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교육의 유무, 대한민국에서의 거주기간 등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의한 구체적인 가설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는 우울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1-1) 무직상태는 탈북자들의 우울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1-2) 가족역할의 상실은 탈북자의 우울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탈북자들의 사회적지지체계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1) 한국에 있는 친척의 존재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2) 한국에서 새로 사귀 친구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3) 탈북자 친구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4)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탈북자들의 사회적지지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3-1) 정서적지지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3-2) 도구적지지는 우울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연구도구

### (1) 독립변인

무직상태는 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직장이 없는 경우 “1”, 직장이 있는 경우를 “0”으로 채점하였다. 적응스트레스로 가족역할상실을 측정하였으며 가족역할상실의 측정으로는 아래의 네 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형제/자매를 두고 나왔다. 2) 북한에 부모님을 두고 나왔다. 3) 북한에 자녀를 두고 나왔다. 4)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나왔다. 형제/자매를 두고 온 것은 형제/자매의 역할상실, 부모님을 두고 온 것은 자녀의 역할상실, 자녀를 두고 온 것은 부모의 역할상실, 배우자를 두고 온 것은 배우자의 역할상실로 가족의 역할상실은 각 역할상실을 1점으로 한 것을 합한 것으로 역할상실의 범위는 0에서 4점이다.

사회적지지체계의 측정으로는 사회적지지망의 존재로 한국에 있는 친척의 수로 친척이 몇 명있는가로 측정하였고, 사회적지지망과의 접촉으로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으로 각각 만난 회수나 전화통화한 빈도수로 측정하였다. 접촉의 빈도는 1. 일주일에 한번 2. 한달에 한번 3. 두달에 한번 4. 6개월에 한번 5. 1년에 1번으로, 자주 접촉하는 것을 높은 점수로 역채점하였다. 총점은 각각 2에서 10점 범주다.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측정으로는 단체의 구성원의 유무를 조사한 것으로 탈북자 자조집단에의 참여여부, 종교단체에의 참여여부,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의 참여여부로 “예”는 “1”, “아니요”는 “0”으로 0에서 3점의 범주다.

사회적지지의 실질적인 기능의 측정으로는 다방면의 사회적지지(Multidimensional Social Support)의 세영역 중 절친한 사람으로 부터의 지지(Winefeld, Winefeld & Tiggemann,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6으로 사회적지지의 측정도구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 측정도구에는 사회적지지의 적절성과 가용성이 포함되어있으며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두세명으로 부터 받는 정서적지지와 도구적지지를 측정하였다. 정서적지지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관심이나 문제를 진심으로 “듣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와 “당신의 문제에 신경을 안쓰도록 하기위해서 농담을 하거나 당신문제 외의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을 조언해줍니까?의 다섯 문항이다. 도구적지지는 한 문항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대신해 준다던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으로 당신을 돕습니까”다. 각 문항은 “1” 결코 아니다, 에서 “4” 대부분/항상으로 리커트척도 4점 범주로 정서적지지의 총점은 5점에서 20점, 도구적지지는 1에서 4점 범주다.

## (2) 통제변인

인구학적인 변인으로 나이는 공식적인 나이로 만나이를 측정하였고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채점하였다. 북한에서의 교육기간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학교(전문대학) 4학년까지 중 최종학력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탈북 이후의 변인으로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기전 중간경유지에서의 체재기간을 개월로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는가의 유무를 “예”와 “아니요”로 각각 조사하였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하나원 교육이후부터 설문조사를 끝낸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개월로 환산하였다.

## (3) 종속변인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반응의 측정으로 우울증 증상이 측정되므로(Ataca & Berry, 2002; Oh, Koeske, Sales, 2002) 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증 증상을 사용하였다. 우울증 증상의 척도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adloff, 197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1이다. 문항의 내용은 “보통 내가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던 일이 성가시럽게 느껴진다” “별로 먹고싶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느낀다” “나의 삶이 실패라고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20문항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1”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는 “대부분/항상”으로 점수의 범주는 20에서 80점이다.

## 4. 연구결과

표1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인구비는 남녀가 약 50%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37.57세로 표준편차 11.59를 감안한다면 26세에서 50세로 청장년층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북한이 고등중학교까지(6년) 의무교육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표준편차 1.57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까지 마친 경우도 더러 있다. 탈북 이후의 특성중 중간경우지의 체재기간을 보면 11.91개월로 보통 1년정도는 제3국에서 체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커다란 표준편차가 말해주듯이 보통 체류기간이 0에서 2년정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44개월로 3년반 정도지만 표준편차가 20개월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한국거주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재교육을 받은 대상자

는 21.64%로 전체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특성(n=171)

		%	평균(표준편차)
인구학적 특성	남	51.46	
	여	48.54	
	연령		37.57(11.59)
	교육(n=170)		6.61(1.57)
탈북 이후특성	중간경유지 체재기간(개월)		11.91(11.84)
	한국거주기간(개월)		44.02(20.29)
	재교육유 재교육무	21.64 78.56	
적응 스트레스	실직상태 재직상태	52.04 47.96	
	가족역할상실		1.18(1.34)
	구조적사회적지지	친척의 존재	
친구 접촉빈도			7.91(2.91)
탈북자 친구 접촉빈도			8.71(2.51)
집단구성원			1.55(0.78)
기능적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15.56(3.40)
	도구적지지		2.74(1.05)
우울증	우울증 증상(n=169)		42.52(6.62)

연구대상자의 적응스트레스를 보면 50%가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직장이 없으며 가족역할상실의 평균수치는 1.18로 한명정도다. 표준편차를 감안한다면 많아야 2명정도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적지지망의 현존으로 친척이 평균 5명정도 대한민국에 있다. 한국에서 새로사귄 친구와의 접촉은 약 8점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만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편차를 감안한다면 한국친구들과의 접촉의 빈도는 적게는 두달에서 육개월에 한번, 많게는 1주일에 1번정도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 친

구와의 접촉도 약 9점으로 한달에 한두번 정도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편차를 보면 적게는 두달에 한번에서 많게는 1주일에 한번정도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자조집단,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의 참석

은 평균 1.55점으로 1개 이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정서적지지는 전체 20점 범주 중 15.56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로부터 자주 정서적지지를 받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도구적지지 역시 전체 4점 중 2.74로 거의 자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울증 증상은 전체 80점 중 42.52로 보통정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모델 (n=163)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b	b	b
인구학적 변인	연령	0.23*** (0.05)	0.21*** (0.05)	0.21*** (0.05)	0.20*** (0.05)
	성별	-0.41 (0.91)	0.20 (0.94)	0.09 (1.01)	-0.08 (0.99)
	교육	0.001 (0.30)	0.06 (0.30)	0.05 (0.30)	-0.20 (0.30)
탈북이후 변인	체제기간	-0.03 (0.02)	-0.03 (0.02)	-0.03 (0.02)	-0.02 (0.02)
	거주기간	-0.05* (0.03)	-0.03 (0.03)	-0.04 (0.03)	-0.01 (0.03)
	재교육	-3.08** (1.25)	-4.28*** (1.35)	-4.55*** (1.37)	-4.56*** (1.34)
적응 스트레스	실직상태		2.39** (1.03)	2.41** (1.03)	2.03* (1.00)
	가족상실		0.04 (0.36)	0.06 (0.41)	0.67 (0.45)
구조적 사회지지	친척존재			0.09 (0.07)	0.07 (0.07)
	친구접촉			0.13 (0.25)	0.23 (0.24)
	탈북친구			-0.40 (0.29)	-0.39 (0.30)
기능적 사회지지	집단소속			-0.58 (0.72)	-0.40 (0.70)
	정서적				-0.52** (0.21)
	도구적				2.30*** (0.68)
F test		F(6,156)=9.35***	F(8,154)=7.84***	F(12,150)=5.70***	F(14,148)=6.10***
R square		0.2644	0.2894	0.3132	0.3658
F 검증테스트			F(2,154)=2.71	F(4,150)=2.39*	F(2,148)=6.14**

각 변인의 상수에 대한 t-test는 한쪽 꼬리검증임(p<.05);

\*p<.05, \*\*p<.01, \*p<.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2는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모델로 모델 1에 의하면 인구학적인 변인인 연령, 성별, 북한에서의 교육은 우울증의 변량을 26.44% 설명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의 증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0.23, p<.001$ ).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는 없으며 북한에서의 교육연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탈북 이후의 변인중 중간경유지에서 체재기간은 우울증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있다( $b=-0.05, p<.05$ ). 또한 한국에서의 재교육의 기회가 있는 것이 우울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교육이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탈북자들의 우울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b=-4.28, p<.001$ ).

모델2는 모델1에 적응스트레스를 첨가한 것으로 무직상태와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증 증상을 2.50% 더 설명하고 있지만 F 점증테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적응스트레스 중 무직상태는 우울증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직장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우울증에의 영향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b=2.39, p<.01$ ). 반면에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증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모델3은 모델2에 구조적 사회적지지 변인들을 넣은 것으로 구조적 사회적지지 변인들은 우울증의 변량을 2.38% 더 설명하고 있다. 구조적 사회적지지 중 한국사회에 친척의 존재, 새로 사귀 한국 친구의 접촉빈도는 우울증 증상에 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빈도와 집단에의 참여는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모델4는 기능적 사회적지지인 정서적지지와 도구적지지의 효과를 보기위한 것으로 기능적 사회적지지를 모델 3에 첨부했을 때 우울증의 변량을 5.26% 더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b=-0.52, p<.01$ ) 도구적지지는 우울증의 증상을 증가시키고 있어( $b=2.30, p<.001$ ) 가설과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회귀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델1의 경우 인구학적인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연령으로, 연령은 우울증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자체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earlin & Mullan, 1992). 또한 연령이 많은 이주자집단과 젊은 이주자집단의 비교에서도 연령이 많은 집단이 자신들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와있다는 느낌이나 속수무책 등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tsuoka, 1993). 본 연구결과인 연령의 우울증 증상에의 정적인 영향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나이가 많을수록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탈북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은 우울증 증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반해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은 우울증 증상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교육은 적응에 필요한 사회화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넓히고, 직장의 획득, 지지망의 획득, 다양한 정보의 활용 등 중요한 극복자원임을 알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때 기대한 것은 교육의 기회가 8.7%,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학교교육이 10.8%와 자녀교육이 12.9%로 교육의 필요성이 23.7%로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표1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1.64%로 그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에 올 때의 기대치 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들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

표2의 모델2에서 보여주듯이 무직상태는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많은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탈북하였는데 기회의 나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약 50%가 무직상태라고 하는데(김성민, 2001) 본 연구의 결과 표1에서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증의 증상에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울증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다. 표1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들을 포함해서 북에 두고온 가족은 1명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가족역할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델1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델2에 적응스트레스변인이 첨부되었을 때 거주기간은 더 이상 우울증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직상태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사회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에 사회적지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3의 경우 구조적 사회적지지 전체의 첨가로 F점증테스트가 유의미하며 우울증의 변량을 2.38% 더 설명하고 있어 탈북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개개요소인 사회적지지의 존재(친척의 수), 빈도(남한의 새로운 친구와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와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단체에의 소속(종교, 사회, 탈북자)은

개별적으로는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 있지 않다. 친척의 존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오히려 우울증의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처음의 반가웠던, 또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탈북자들이 한국땅에 거주하여 적응하며 생활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여 생긴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친구와의 접촉에서도 한국에서 새로 사귀 친구는 우울증 증상에 정적으로, 탈북자 친구는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무직상태나 가족역할의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친구들과의 만남이 한국에서 새로 사귀 친구들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에의 소속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우울증 증상에 부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집단에의 소속감이 그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의 소속 중 탈북자단체의 소속은 자조집단의 역할을 하므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열악한 조건의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모델4의 경우 기능적인 사회적지지는 탈북자의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지지는 탈북자들이 적응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와 격려가 되어 한국사회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이나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로 도구적지지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탈북자들이 무직상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주던가 일을 대신해주는 것 등으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많은 경우 사회적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때로는 본 연구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도우려는 사람의 의도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의 상황이나, 도움의 정도나, 제공자의 태도나, 받는 사람의 도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성 즉 사회적지지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수혜자가 원하지 않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Pearlin & McCall, 1990)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역효과가 나타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때에도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대상에의 접근이 어려운 것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넘는 설문조사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통계적인 추론을 통한 연구이지만 편의적인 표본조사에 의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또한 탈북자의 특성상 구조적인 지지의 측정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보다는 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종류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측하였던 것과는 달리 도

구적지지는 역방향으로 탈북자들의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탈북자들의 필요에 적절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적지지의 측정도구가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우울증 증상이 이들의 탈북하는 과정의 어려움에서 생긴 것인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과정에서 생겼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 후에 바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등을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그들의 적응상태를 파악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단순한 직업의 유무로 인한 무직상태 뿐 아니라 그들이 직업을 못 갖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연구결과가 설명하듯이 단순히 한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의 교육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원에서의 적응교육 외에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자활하여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미 갖고있는 북한에서의 자격은 한국에서의 단기간의 재교육을 통하면 한국사회에서 직장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통일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이 탈북자들 스스로가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직업에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후에 모두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의 구직의 어려움을 차별, 북한에서의 자격을 인정 안해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해소되어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친구들을 사귀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므로 동등하게 친구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에 탈북자들을 돕기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한국민들과 자연스럽게 사귄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지지의 중요성이 보여주듯이, 또 많은 탈북동포들이 제시하듯이 우리들이 그들의 향하여 해야할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피 주는 것이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지지는 그들이 겪는 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단순한 사회적지지망의 존재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배려를 줄 수 있는 가족, 친구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구적지지가 오히려 그들의 우

울증 증상을 증가시킨 것을 통하여 단순히 일을 대신 해준다던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등으로는 그들의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는 교육지원이 있으나 연령의 제한과 기간의 제한이 있다. 특히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만학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탈북자들의 교육자원에 연령의 제한은 폐지되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지원은 공납금 지원과 학자금 지원(통일부) 등의 지원이 있지만 탈북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기간동안 다른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탈북자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찾고 활용하여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의 생존경쟁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자조집단 뿐 아니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지지를 넓혀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서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속감도 중요하므로 탈북자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도 이들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밑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집단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 한국사회도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정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또한 그들을 도움이나 받는 이방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진 자들로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활하도록 하는 도움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활정책을 적극모색하며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같은 동포로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도 한국국민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자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민들에게 독일이나 자국에 거주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한 다른 국가들의 정책 등의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명세(1996).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 전우택 편 (1996),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92-105.
- 김성민(2001). "'탈북자'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당대비평, 16, 274-286.
- 김학성(2000).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 정승원(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연구, 성곡논총, 제 3집, 595-712..
- 북한인권시민연합(2000).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미간행 연구계획서.
-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 윤인진(1999). "탈북자의 적응실패와 정책자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23-184.
- 윤인진(2000b).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색, 제39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윤인진(2001).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당대비평, 16, 222-255.
- 이기영(1998),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8집, 161-176.
- 이기영(2000). 국내탈북자 적응 및 정착의 지원방안, 제39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 이소래(1997). "사회적지지가 남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149-161
- 이영선, 전우택 편(1996).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우영(1997). "Nothern Defectors in South Korea". 신동아, 5월호
- 이장호(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28집, 제4권, 739-789.
- 전우택, 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 전우택 편

- (1996),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16-60.
- 전우택(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 제성호, "탈북자 정책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3호, 221-247.
- 장혜경, 김영란(2000).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미간행 연구보고서 "우리가 버린 탈북 청소년들". 조선일보, 2004년 7월 8일, "탈북자 집단입국시대". 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
- 통일부 [www.nis.go.kr](http://www.nis.go.kr),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한인영(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Ataca, B., & Berry, J. W.(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Gibson, M. A. (2002).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5-38.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 413-44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 S. Leonard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George, L. (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course. In Kyriakos S. Markides & Cary L. Cooper (Eds.), *Aging, stress and health*(pp.241-267). New York: John Wiley & Sons.
- George, L. K.(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Sociology*, 19, 353-73.
-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 483-496.
- Helgeson, V. S. (1993). Two important distinctions in social support: Kind of

- support and perceived versus receiv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0), 825-845.
- Hirayama, K., Hirayama, H., Cetingok, M. (1993). Mental health promotion for Southeast Asian Refugees in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36, 119-129.
- Hyman, I., Vu. N., & Beiser, M.(2000). Post-migration 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 youth in Canada: A research not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2), 281-293.
- Kahn, R. L., & Antonucci, T. C. (1981). Convoys of social support: A life-course approach. In Sara B. Kiesler, James N. Morgan & Valerie Kincade Oppenheimer (Eds.), *Aging: Social change* (pp.383-405). New York: Academic Press.
- Lin, Nan (1986). Model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Nan Lin, Alfred Dean & Walter M. Ensel (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pp.173-209). Orlando, FL: Academic Press, Inc.
- Lin, N., Ye, X., &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Matsuoka, Jon (199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in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7 (3/4), 1-21.
- Matsuoka, Jon K., Ryujin, Donald J. (1989-1990). Vietnamese refugees: An analysis of contemporary adjustment issues.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4 (1), 23-45.
- Oh, Y., Koeske, G. F., & Sales, E.(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4), 511-526.
- Pearlin, Leonard I.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In Howard B. Kaplan (Ed.),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3-32).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Pearlin, L. I. (1985). Social structure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 S. Leonard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43-60). Orlando, FL: Academic Press, Inc.
- Pearlin, L. I., & Johnson, J. S. (1977). Marital status, life-strai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704-715.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earlin, L. I., & McCall, M.(1990). Occupational stress and marital support: A description of microprocesses. In John Eckenrode & Susan Gore (Eds.),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pp.39-60). New York: Plenum.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ow, I. (1985).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cycle. In R. 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pp.62-93). New York: Ban Nostrand Reinhold Co.
-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51-72).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Turner, R. J. (1983). Direct, in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In Howard B. Kaplan (Ed.),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105-155).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Turner, R. H. (1990). Role change. *Annual Review Sociology*, 16, 87-110.
- Winefield, H. K., Winefield, A. H. and Tiggermann, M (1992).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s: The Multidimensional support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198-210.
- Wheaton, B. (1990). Life transitions, role histories, and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09-223.

## ABSTRACT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im, Meeryoung**

Due to the increasing concerns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es have been increased.. However when compared with other areas, the researches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rar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171, which makes it possible to do statistical inferences. This study examines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As a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The context factors-the period of the stay in the third place, the period of residence and the existence of the education in Korea-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jobless is an important stressor. The structural social support affects the adjustment of stress as a whole and not individually. Among functional social support, the emotional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of adaptation, but the effect of structural social support is the opposite. Therefore, the adequacy of social support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adjustment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